

# 주말 가을의 향취가 듬뿍 담긴 행사 돋보여

## 가을날의 트락음악회 · '응기종기 행복한 책 잔치' · '난타 페스티벌' 등 풍성

트락 음악회, 난타 페스티벌, 책 나누기 마당 등 가을을 마중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 열린다.

### ▲ 가을날의 트락음악회



국립전주박물관 마당서 열리는 트락음악회

국립전주박물관과 (사)마당은 가을을 맞이하여 잔잔하고 아름다운 서정적인 음악을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울릴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24일 오후 7시 국립전주박물관 마당에서 열리는 '가을날의 트락음악회'는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무

대로 꾸며진다. 이날 음악회는 어쿠스틱 기타 듀오 2km와 백은선씨의 '가야금&해금' 연주,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의 합창, 김재윤씨의 비올라와 김우재씨의 기타 협연 등으로 함께 진행된다. 트락음악회는 무료 야외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 책 나누기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소장 도서 중 활용하지 않는 책을 교환·기증 할 수 있는 나눔의 장터가 열린다. 전북도청도서관과 임실군립도서관, 전북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책 나누기는 <BOOK소리 한 마당 '응기종기 행복한 책 잔치'>를 주제로 24일 오전10시~오후4시 임실군청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학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북뮤지션 제갈인철의 'BOOK 콘서트'와 '아바바다 장터', '우리도서관 작품전시',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 등의 문화 이벤트가 마련된다. 독서 골든벨 우수자와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품권을 증정 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임실군립도서관에 하면 된다. 이외에도 팝업 동화책만들기, 캘리그라피 가을엽서,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여행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전북도청도서관 280-3305, 임실군립도서관 640-2931

### ▲ 난타 페스티벌



한옥마을 난타페스티벌은

타악을 사랑하는 전국의 난타 마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리듬의 향연을 선보이는 '제4회 한옥마을 난타페스티벌'이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당 야외마당에서 개최된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당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사)타악연희원 '이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난타 동호인 경연대회와 전문예술단체 초청 공연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24일 교통 풍물패의 축하 길놀이로 포문을 열어 전국의 난타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문별 난타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 중인 타악연희원 '이휘'의 레퍼토리 공연과 전통예술단이 펼치는 '혼'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25일에는 '백세시대 취태대'의 특별공연을 비롯해 아상의 퓨전타악 '립내인', 여인천하의 타악퍼포먼스 'Tashow'의 초청공연 그리고 무예공연예술단 '지무단'의 검무공연이 각기 펼쳐진다. 행사는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취산악'이 폐막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문의는 타악연희원 이휘 070-7558-4023. /정해은 기자



##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전주 구도심 주제로 디자인 설계 진행

### 교육부 대학특성화 사업 지정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산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이념하에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몇 해 전부터 졸업작으로 '한국전통문화의 세계화 연구'를 기획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전주시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도시재생과 함께 '전주시 도시재생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전주불계아트디자인, 전주천변산책로디

자인, 공구거리디자인 등 전주시 구도심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설계 중이다. 이에 앞서 작년에는 (주)노루프로젝트와 산학으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졸업작품을 전주시청 로비에서 특별전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서는 전통문화기반 산업디자인 특성화과로 선정됐다.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매

년 3억씩 특성화교육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산업디자인 요람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주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문화기반의 산업디자인 핵심인력 배출과 함께 대학생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는 디자인 전문회사 참여이 산업화 모델로 이어지게끔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

### 올해 마지막 거리공연 펼쳐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주말 저녁 올해 마지막 버스킹 공연이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24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버스킹공연은 젊은 여성 국악인들로 구성된 '소담소리 아트'의 국악 한마당 무대로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민요, 판소리, 창극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올해 마지막 거리공연인 만큼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산책하기 좋은 가을밤 공연도 보고 야외조각도 감상하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는 문화향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오는 28일 폭소 클래식 콘서트 '함보임'으로 콘서트와 10월에는 대형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 2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문정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벼룩시장 같은 '서울디자인위크 2016'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2일 개막한 '서울디자인위크 2016'의 행사 주제다. 주최 측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스마트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으로 '스마트 디자인'을 내세웠다. 재단 측은 "스마트 디자인을 통해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 서울을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디자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첨단기술과 인공기능,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영리하고 똑똑한 디자인을 넘어 지혜를 겸비한 디자인으로 '스마트 비욘드 스마트(smart beyond smart)'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시도를 거창한 설명을 곁들였다. 행사는 57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 꾸며졌다. 주제전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라이프'를 비롯해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콘퍼런스' 2016 유나이티드디자인 서울, '2016 서울공예박람회', 'AGI(국제그래픽디자인연맹) 오픈 서울 2016' 등이다. 그러나 복잡한 동선과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다. 미로같이 복잡한 DDP 이곳저곳에 물건들을 깔아놓은 탓이다. 특히 각 행사들은 철저하게 개별적이다. 행사 운영원인 A씨는 "몇 번을 왔지만 복잡하고 동선의 연계성도 없는 듯하다. 일반 관람객들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르는 형식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키워드는 스마트지만,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벼룩 시장을 연상시키듯 작은 부스를 차린 업체들은 상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 각종 액세서리를 비롯해 휴대전화 케이스, 가방, 그릇, 차량용 충전기 등 없는 게 없다. 500만원에 육박하는 전통화랑 전통키보드도 들여왔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예약판매를 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코너도 있다. 25~29일 열리는 AGI 디자이너 전시다. '아이 러브 서울(LOVE SEOUL)'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전시에서는 서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포스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AGI 서울 총회를 겸해 마련됐다. 서울 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다. 아들과 함께 국내 디자이너 30여명이 포스터 전시를 나섰다. 영화 '중경삼림'의 포스터 디자이너 스탠리 워 마스터카드와 쿠파푸드디자인뮤지엄 로고를 디자인한 에디 오퍼라, 영국 테이트미술관 로고를 디자인한 마리나 윌러, 루브르미술관 로고를 디자인한 에블린 앤 더크 등의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다. '서울디자인위크 2016'은 10월2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 군산에서 29일 오성문화제전 열려

오성문화제위원회(위원장 이진원 군산문화위원장)이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백제 오성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25회 오성문화제전을 오는 29일 오성산 정상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전은 성신면민들로 구성된 고살매농악단의 식전 방울림 흥겨운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오성대제례로서 봉제선언, 헌국다례, 초헌·아헌·종헌례, 독축 헌시낭송, 헌화, 오성인 훈포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부는 개막식 3부는 문화행사로 군산문화예술단의 민요, 예도원 단원의 한량무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임피헌 교적조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공멸 시 오성산에서 병력을 주둔시킨 가운데 인개로 길을 잃고 헤맸 때 문득 다섯 노인(노인)을 만나 그들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묻자 이에 노인들은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우리가 어찌 길을 가리켜 줄 것이냐"하고 항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에 격분한 소정방은 그들을 참살했는데 후일 물러갈 때 이들의 충절을 기이하게 여기고 오성산위에 장사 지냈으며 지금도 오성인의 묘는 오성산 정상에 나뉠히 안치되어 백제인의 충절을 표상하고 있다. /문정근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9월 23일>

**▷쥐띠**  
46년생: 금전이 나갈 수 있는 윤이나 화합에는 좋은 윤이다.  
60년생: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지 마라.  
72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고생끝에 낙이 오니 인내하라.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용띠**  
52년생: 이미 자신이 알기 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니 미련을 버려라.  
64년생: 쥐띠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상황이 따라 처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숭이띠**  
58년생: 손이라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  
80년생: 좋은 일하고 뽀 맞는겨, 나사지 않는것이 최선.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윤이니 원행은 삼가라.

**▷소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윤이니 주의하라.  
61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알려진다.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윤.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뱀띠**  
53년생: 새로운 사람에게 만남도 길하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되니 매사 냉정하라.  
77년생: 지나간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89년생: 걸으려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려는 다른 마음이다.

**▷닭띠**  
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을 얻는다.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윤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한다.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윤.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운전은 삼가고 가급적 원행도 삼가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다.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언행을 말라.  
6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라.  
78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윤.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윤.

**▷개띠**  
49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져라.  
61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윤이다. 관리가 필요하다.  
73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는다.  
85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다.

**▷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좋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익이 따르는 윤.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슬수가 따른다.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윤.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긴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다.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때이니 말을 골라서 하라.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발랄하게 다니면 흥남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